

정연만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사진 왼쪽)과 이금석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장(사진 왼쪽 두번째) 등이 시타를 하고 있다. 이날 대회는 궂은 날씨에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티오프 전 밝은 표정으로 화이팅을 외치는 참석대중들.



클럽하우스에 걸린 자선 골프대회 기부자명단은 오가는 사람의 눈길을 끌었다.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서 수상한 참가자가 환호한다.

春雨도 막지 못한 '자비의 티샷'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 4월 18일 제1회 생명살림 자선골프대회 현장

봄비가 대지를 적신 4월 18일, 쌀쌀한 날씨에도 자비심을 담은 타구는 힘차게 창공을 갈랐다.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신도회장 이금석) 주최 '제1회 생명살림 자선골프대회'가 양평 TPP G.C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봄기운이 아직 완연하지 않았고, 궂은 날씨로 대회 참가가 어려운 와중에도 생명살림에 동참하기 위해 라운딩에 나선 참가자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힘차게 티샷을 날렸다.

그동안 불교계에서는 축구 등 생활스포츠를 매개체로 다양한 대회를 열어왔지만 골프를 주제로 대회를 연 것은 사실상 처음이었다. 이번 대회에는 재계, 문화계 불자들을 비롯해 사찰 신도 임원 등 총 144명이 참가했다. 36개조로 나뉘어 18홀로 구성된 이번 대회에 조계종 직할교구 사무처에서 500만원을 지원하고 뱅골프코리아에서 골프백을 후원하는 등 각계에서도 관심을 표했다.

참가자들은 대회 시작 전 불교포교 활성화와 불우이웃을 위한 기부금도 쾌척해 대회 취지를 드높였다. 그린피와 캐디, 카트피, 식대 등을 합한 참가비용은 1인당 30만원, 여기에 직할교구신도회 임원들은 100~300만원 씩 성금을 기부했다.

남양주 보현사에서 온 김홍범 씨는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친목 도모 겸 자선 골프대회에 참석하게 됐다"며 "불교신자들이 그동안 소극적인 면이 있지만 뭉쳐서 힘을 발휘할 때는 조용한 곳에서 큰 힘이 나온다. 다양한 취미를 연결고리로 불자들의 역량을 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회를 준비한 강정옥 직할교구신도회 팀장도 "바자회 등에 비해 참가열기가 높은 편"이라며 "함께 운동을 즐기며 기부도 할 수 있기에 호응이 좋다"고 말했다.

불교포교 · 결식아동 돕기 취지
각계 144명 모여 3000만원 기부
우천 중단에도 "뜻깊다" 소감 밝혀

식사를 마친 대중들이 클럽하우스에 모여들자 곧 대회 시작을 알리는 개회식과 시타가 진행됐다. 개회식에서 불자 대중들은 '생명살림 파이팅'을 외치며 선전을 기원했다. 시타는 정연만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과 이금석 직할교구신도회장, 지승동 직할교구신도회 고문, 김진학 율립건설 대표이사 등이 맡았다. 티오프 선언과 동시에 이들은 힘차게 공을 날렸다.

잠시 후 각 조별 경기가 시작됐다. 카트에 나눠 탄 이들의 표정은 밝기만 했다. 티오프 후 코스마다 호쾌한 타구와 함께 밝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참가자들은 오랜만에 만난 듯 반갑게 안부를 물으며 화합의 장을 만드는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참가자들의 열정이 뜨거웠지만 대회를 계속 진행하기에는 점점 어려움이 커져갔다. 전날부터 예고된 봄비가 대회 시작 직후 골프코스 곳곳에서 흩날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바람까지 거세지며 참가자들은 경기를 소화하기 어려워졌다.

비를 피하느라 경기가 중단, 계속되기를 반복하다, 결국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됐다. 당초 18홀이었지만 결국 9홀로 축소, 대회가 중간에 멈췄지만 자선의미로 참가한 이들의 표정은 밝았다. 참가한 이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대회를 마무리 했다. 직할교구 측도 최저타상, 최다버디상 등을 준비했지만, 상명을 바꿔 가장 먼 곳에서 온 참가상 등을 수여했다.

정연만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은 "비가 와서 불편했지만, 생각을 바꾸면 생명살림의 비가 내려 대회 취지와 맞다고 생각한다"며 "자선의 의미로 모였기 때문에 날씨와 상관없이 모두가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는 총 3000만원의 성금이 모연됐다.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는 이번 대회에 앞서 동국대 일산병원에 환우돕기로 500만원, 고양시 이주민가정 돕기 500만원 등을 후원했으며 모연된 기금을 바탕으로 결식아동돕기 등에 나설 계획이다.

양평=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스포츠로 신도 네트워크 결집 앞장"

이금석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장



올해 처음으로 치러진 제1회 생명살림 자선골프대회 대회장에서 만난 이금석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장〈사진〉은 생명살림을 위한 기부에 관심을 갖고 참가한 불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부처님오신 날을 맞아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행보에 보다 활발한 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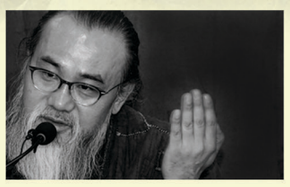
이금석 직할교구신도회장은 "이번 자선대회는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 특히 결식아동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따뜻한 마음을 품고 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교발전을 위해 매진하는 불자들이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하고 건강을 다질 수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골프는 최근 보급화하며 생활체육종목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의외로 불자분들 중에 공을 치시는 분들이 많아 호응이 좋았다"며 "기독교계에서는 골프 등을 이용해 좋은 목적의 자선대회를 자주 연다고 한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다양한 스포츠를 매개체로 한 대회가 자주 열린다면 불자 및 신도네트워크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금석 회장은 "집중과 균형감 등을 요하는 골프는 인성과 지성을 함양시키고 건강도 도모한다. 많은 분들이 이런 자선대회를 통해 자비실천에도 동참하고 소외계층도 한번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대회에 불자들뿐만 아니라 지인에게 소개 받은 일반 시민들도 참여하고 있다. 불교계에서 개최한 대회에 참여하며 포교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TN 불교TV와 함께하는 프리토킹 프로그램

각설하고 覺說何故!



• 주제별 대본없이 진행하는 프리토킹 강사~진귀장자

깨달음 山門

NAVER 깨달음산문 검색

공개강좌 일정표

1차 공개강좌	주 제 : 사 성 제	‖ 일시 : 2017년 4월 16일 일요일 오후 2시
2차 공개강좌	주 제 : 법화사상	‖ 일시 : 2017년 5월 21일 일요일 오후 2시
3차 공개강좌	주 제 : 반야사상	‖ 일시 : 2017년 6월 18일 일요일 오후 3시
4차 공개강좌	주 제 : 유식사상	‖ 일시 : 2017년 7월 16일 일요일 오후 3시
5차 공개강좌	주 제 : 화쟁사상	‖ 일시 : 2017년 8월 20일 일요일 오후 3시
6차 공개강좌	주 제 : 화엄사상	‖ 일시 : 2017년 9월 17일 일요일 오후 3시

※ BTN 방송안내 : 본방 목요일 밤 11시, 재방 : 금요일 밤 11시

※ 강좌에 관심있는 분이면 누구나 참석가능합니다.

• 문 의 : 1899-9532